

2024년 12월 28일(토요일)
빠당시, Indonesia.

보내는 이 : 정이브라힘, 김사라(예림,유신) 올림
이메일 주소 : jjs1026@gmail.com/ 카톡ID : jjs1026

샬~~롬!! 그 동안도 주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한국은 한추위가 왔다는 데, 늘 두 손 모아 기도하건대 나라가 안정되고, 공동체가 평안하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 캠퍼스 및 청년사역(안달라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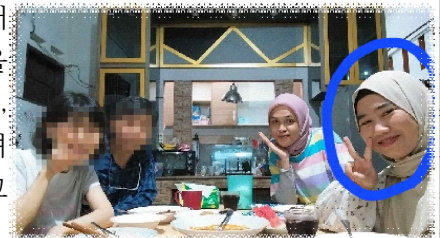
▶ 그동안 잠시 쉬었던 <한국어동아리>모임을 2025년 새해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의 논문작성과 각종 학교행사, 마을행사 참여로 너무 바빠서 잠시 쉬었던 캠퍼스 내 한국어동아리모임을 새내기 회원과 신입회원을 추가로 뽑아 새해 2025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무료로 진행되는 한국어강의이기에 학생들이 너도나도 공부하겠다고 줄을 서는 바람에 지난번엔 인원을 제한하여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번에 대학언어센터의 강의실을 임시로 빌려 죽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센터장이신 교수님께 협조공문을 보내어 강의실 사용을 타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한국어동아리모임을 통해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福音사역의 길이 열렸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ㄱㄷ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여청년 <딜라>(수석졸업, 영어학원강사) (엄마 데위, 여동생 아린, 따사, 기나, 아이니, 남동생 라뻬)

캠퍼스에서 만난 가장 오래된 여청년 딜라의 소식을 간만에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소식에서는 김사라 선생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딜라는 제가 준 자료를 읽기 꺼려하고 애써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후에도 저희는 ㄱㄷ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며 또 다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聖靈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자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지속하며 어떤 주제이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서로의 신뢰의 간격을 좁히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딜라를 다시 집으로 초대해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후에도 안 바쁠 때 서로 연락하고 가볍게 안부나 얘기를 주고받으며 (바로 밑에 동생의 대학졸업소식과 사진도 보내오고) 또 가끔 음식도 주고받으며(자기엄마가 만든 음식을 보내오기도 함)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튼 그날 여청년 빌라(동역자)도 우리와 함께 동석을 했고(캠퍼스에서 서로 얼굴을 익히 아는 사이 인지라), 이것저것 부담되지 않게 가벼운 주제로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 담소하고 자리가 끝나갈 때쯤 저는 재차 중요한 얘기?를 덧붙여 전하며 제가 준 자료와 聖經앱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꼭 읽어볼 것을 권면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때가 무르익어 가장 적절한 때에 딜라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읽을 때가 오겠지만 결국 부지런히 씨뿌리고 물주고 가꾸는 傳道의 미련한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많이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봅니다. 여청년 딜라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ㄱㄷ해주세요~감사합니다.

◎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며 (M지도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안달라스 대학교 언어센터 여직원 남편, 우스타드 “올렘”과 부인“헬마” 아들 하피즈.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오래 알고 지내던 대학언어센터 여직원 헬마의 남편 올렘씨가 경건한 우스타드인 것을 알고난 후부터 저희는 가끔 연락을 취하며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보기에든 근본심성이 선하고,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도 강한지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느님나라 위해 일할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우스타드들이 저희를 부담스러워하며 슬며시 관계를 끊거나 돈을 너무 밝히는 바람에 마음이 답답했고, 맘속에 절로 ㄱㄷ가 나오기를, ‘주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충성된 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만나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람 중에 참된 일꾼이 없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소서!’ 라고 ㄱㄷ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기대하고 바라기는 올렘씨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충성된 일꾼이기를 소망해봅니다.



그 날도 저희는 서로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소소한 삶의 이야기와信仰적인 대화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여러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무스림들의信仰과 삶은 왜 일치하지 않는가? 에 대해서, 또 天國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에 대해서도~~ 하지만 아쉽게도 이분도 다른 우스타드가 앵무새처럼 주입식으로 배운 것을 답하듯이 그렇게 행위로 상급을 쌓고 天國에 들어가는 (올법주의) 논리로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아~ 계속 꾸준히 ㄱㄷ해주는 것 밖에 없겠구나! 언젠가 聖靈의 은혜로 영안도 열리고 福音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도 열리도록.....’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이라도 함께 올렘씨와 가족들을 위해 ㄱㄷ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종교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우스타드 “에리”(Eri) 선생과 부인-“리아(종교교사)”, 세 아들(알비, 하산, 하스비) / 처제(띠아)와 가족들(남편 안디, 아들 알).

에리씨와 부인 리아와 그 가족들과는 자주 과일가게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웃고 헤어지지만, 좀 더 진지한信仰적 이야기를 나눌 여건이 못 되어 늘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요즘 에리선생의 그 얼굴표정에서 어딘가 모르게 차츰 차츰 조금씩 진지해져가는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돈을 쫓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영적인 목마름가운데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終末과 救援, 天國과 永生에 대해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하느님이 어떤 사소한 만남도 연을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만남에도 결코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이번에 에리씨의 처제 띠아가 언니 가게로 아예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어 저희가 띠아새댁을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청년 때에 자기 고향마을 마스진에서 아이들에게信仰을 가르치는 청년교사로 섬겼는데, 가끔 언니집에 오면 우리와 만나곤 하다가 결혼을 하고는 한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어느 대학교에서 경비를 서고 있어 주말에만 귀가하기에, 평일에는 언니가게 옆에 샌드위치가게를 열어 가게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알)의 웃도 한 벌 사주며(그때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도 못해주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가끔 SNS로 소통하며 소식도 묻고 또 가끔 가게를 지나갈 때는 인사도 나누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틋 그동안 우리 부부와 서로 오래 알고 지내던 사

이인지라 편한 마음으로 자주 만나면서 기회가 되면 信仰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 그가 먼저 믿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라도 언니와 형부 가족도 돌아올 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주여~ 이 가족들에게 救援의 은혜를 베푸소서!!

▶ 이슬람대학에서 종교교육학 박사를 마치고 대학교수 임용을 기다리는 우스타드 “라흐맛”(=Rahmat), (부인-씨파, 큰딸-카디자, 아들-우마르, 딸-라흐마)



작년부터 저희가 몇 번이고 찾아가고, 연락하며, 또 저희 집으로 놀러오라고 초청도 하면서 (물론 계속 ㄱ도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좀처럼 다가 오지 않던 **라흐맛선생**이, 제가 얼마 전 동네 가게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먼저 아는 체를 하며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사정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가정에 어떤 우환도 있었고, 가족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자신도 많이 바쁘고 힘이 들었다면서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원해서 제가 필요한 시간에 이리저리 그렇게 설치고 다녀도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제가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제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이 알아서 이 사람이 저를 만나도록 간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하느님께서 무언가 일하시려나보다 생각하고 며칠 후 **라흐맛선생**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 시간이 있느냐? 우리가 당신 집으로 놀러 가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시간이 된다고 해서 김사라 선생이랑 곧바로 과자가게로 가서 도넛을 한 박스 사고, 한국 지갑과 믹스커피 선물도 몇 개 담아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맙게도 **씨파부인**도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 차를 끓여놓고 굴과 찰락과일도 한바구니 담아 대접하며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참 오랜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근황도 나누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질문도 드리겠다고 말하고, 또 서로 함께 놀러도 가고 자주 만나자고 약속도 하면서 좀 더 가까워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언가 부담스러워하며 저희를 피하던 **라흐맛선생**도 이제 조금은 맘이 열린 걸까요?

이제 서로 편하게 자주 만나자고 운을 띄워 놓았으니, 분명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라흐맛선생**에게 공을 들이고 특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 젊고, 이슬람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제대로 된 우스타드이고, 그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우스타드를 위해 함께 두손 모아주세요!

◎ 새로운 주변(M)이웃들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심방, 전도, ㄱ도 모임

▶ **베게엘이** 동네 **엘** 아주머니(남편 **암주니르**-퇴직군인, 딸 **이**, **아울리아**, **뿌뽏**, **닌디**, 아들 **길랑**)

저희의 외딴 信仰훈련센터 사무실, 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엘아주머니**랑 **암주니르아저씨**는 그동안 1년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아저씨가 늘 웃으며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아주머니도 집밖을 잘 나오지 않아 그동안 인사만 하고 교제가 없다가 지난 9월 갑자기 신장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깜짝 놀라 위로 차 심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긴급처방으로 수술이 아닌 소변줄을 끼우고 기력도 없이 앞으로 있을 수술에 겁에 질려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구두로 하느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죽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무슬림인데도 왜 걱정하며 두려워하느냐? 그건 전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다. 당신들 쿠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 지체장애인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나병환자도 고쳤다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

님 이름을 의지해서 ㄱㄷ 한번 해보자고 직접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큰딸이 우리 무서움은 절대 그렇게 ㄱㄷ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했고, 아주머니 아저씨도 난색을 표해 그냥 일반적인 ㄱㄷ(건강회복과 축복의 ㄱㄷ)만 함께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10월에 여청년 빌라까지 동행해 다시 그 집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병원에 갔다가 두려워서 수술을 거절하고 그냥 소변줄만 끼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는 귀란의 다른 부분에 예수님 이야기를 언급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신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고, 치료도 받는다고 권면하며 함께 ㄱㄷ하자고 해서 聖靈의 감동대로 세계 ㄱㄷ를 해주었습니다(물론 저희들 세 사람은 맘속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ㄱㄷ를 했습니다).

그런데 ㄱㄷ후 엘아주머니와 암주니르아저씨는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ㄱㄷ가운데 확신이 생겨서 연신 고맙다고 하며 그 후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고, 그렇게 10월중순경 수술을 잘 마치고 11월쯤에 귀가하여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 이분들이 마음이 안 열려 예수님 이름으로 ㄱㄷ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救援주로 믿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때가 되면 이 가족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h!! 이 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ㄱㄷ해주세요~~감사합니다.

▶ 꼼빨렉 그리야 동네의 이다(Ida) 아주머니와 자녀들(아들-알리사브리, 청각장애-밋따홀), 남편-파드릴.

불쌍해서 ㄱㄷ할 때마다 늘 맘이 쓰이는 아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밋따홀은 그렇게 그냥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가는 아이입니다. 몸도 많이 마르고 연약한 몸상태로 감기도 잘 걸리지만 해맑게 웃으며 귀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저희가 잠시 한국에 치료차 가 있는 동안에도 문자가 와서는 “왜 삼촌과 이모는 한동안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느냐?”고 보칩니다.



귀가 둘 다 막힌 기형으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태어나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지만 지능은 똑똑한 밋따홀의 얘기를 저희가 방문한 몇몇 공동체에도 소개하며 함께 믿음으로 ㄱㄷ를 했었는데요. 바라기는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가서 계속 믿음으로 ㄱㄷ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에바다의 역사가 밋따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ㄱㄷ해주세요!~~ 아Aaa~멘Meen..

그래서 이곳에 돌아오자마자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아이가 애기티를 벗고 얼굴이 달라지며 쑥 커가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애들은 아프면서 크다더니 그렇게 자주 아프면서도 밋따홀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빌라 여청년도 저희와 함께 동행했는데요. 사실 빌라 여청년은 어느새 저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禮拜하고, 함께 중보ㄱㄷ하고, 함께 심방하고, 함께 傳道하고, 함께 계획을 논의하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이나 傳道를 하러 같이 모임에 가면, 몰래 사진 찍는 게 자신의 중요역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날 역시 더이상 이웃 사람들도 저희를 별로 신경쓰지 않아서 얘기 말미에 저희는 맘껏 밋따홀과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ㄱㄷ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밋따홀도 눈을 감고 아멘으로 화답했고, 이다 아주머니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맘속엔 밋따홀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 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와 참된 救援을 받기를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아래 영육 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온가족이 구원받도록 함께 믿음으로 ㄱㄷ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성격이 아주 밝고 씩씩하고 친절한 샤라 아주머니(남편 페니, 큰딸 까르띠까와 큰아들 하난, 둘째딸 피오나, 막내아들 레즈끼)

샤라아주머니 가족과의 만남도 여기 온 후 그런대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샤라아주머니와 처음 만나 ㄱㄷ를 같이 하면서 자녀 ㄱㄷ응답의 체험(장학금)으로 가까워졌지만, 그 후 서로 영적으로 긴장도 많았고, 오랜 시간 밀고 당기기하면서 한 동안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며 만남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쑥쑥 커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친해지는 계기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띠까와 하난은 치킨집이나 박소가게에서 만나 함께 먹으며 친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띠까는 영어학원엘 다니고 난 후 영어성적뿐 아니라 전체성적이 크게 올라 본인도 너무 기뻐하고 가족들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라 띠까는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적인 대회(국기게양, 걸스카우트대회, 체육대회, 춤대회 등)는 다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는데요. 아무래도 자기적성과 바램대로 경찰공무원이 돼야할 거 같습니다. ㅎㅎ



이런 가운데 사실은 저희도 그동안 띠까를 집으로 초대해 과자나 음식을 대접하며 영어를 가르치면서 기회를 타 傳道하려고 애썼고, 빌라여청년도 저희와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띠까를 섬기고 싶어 몇 번이나 센타 숙소방으로 초대해서 같이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영어도 함께 공부하며 가까워지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차츰 친해지면 띠까에게 먼저 福音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봅니다. 일단 띠까가 너무 바쁘고, 또 언니랑 노는 게 아직은 그렇게 썩 끌리지 않는가봅니다. 그래서 암튼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ㄱㄷ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탄절에는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샤라부인 온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다 돌아왔습니다. 때가 될 때 좋은 기회가 오도록 이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믿음으로 ㄱㄷ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저희와 이웃(수마프라섬 미낭까바우족 Mu슬림)을 위해 필요한 도고

1. 매일 예배와 큐티를 통해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희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매일매순간을 은혜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보살펴주시되, 聖靈의 충만한 은혜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 은혜를 부으사 저희의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순탄케 하옵소서.
2. 이곳 MK족을 품은 저희의 사랑이 참되게 하시고, 하느님이 주신 킹덤비전이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브라힘과 사라가 새로운 이웃과 잘 어울리며 의미있는 교제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빌라자매가 聖靈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 담대하게 福音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교제하고 있는 M선생들(우스타드), 아주머니들 가정과 (딜라)자매와 (뽀지)형제도 마음이 열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3. 정이브라힘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사 비자를 위한 논문작성과 발제도 잘 감당케 하시되, 새 비자나 모든 길이 계속 형통하도록 선히 인도해주옵소서! 이사한 셋집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사 지붕누수를 잘 고쳐주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신실하고 재능있는 일꾼도 붙여주옵소서!
4. 이브라힘의 모친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소망을 갖도록. 사라의 모친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딸 예림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과 삶이 더 건강하고 강해지도록 지켜주시고, 아들 유신이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앞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 후원 계좌번호 -----

농협(정★성) 703023-56-015967 우리(정★성) 1002-359-366943 하나(정★성) 167-890741-30807

★ 이 자료를 인터넷에는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저희의 본명은 사용하지 마시길~~)